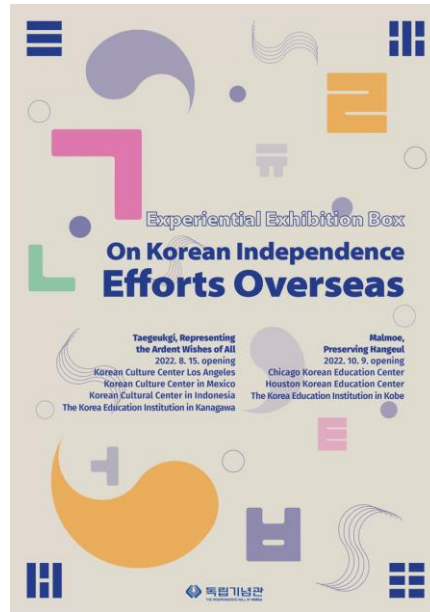


[2022-39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2. 8.19(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LA한국문화원, '태극기' 교육·전시 공간 새단장



- ▶ 전시명 : LA한국문화원, '태극기 영원을 담다' 전시
- ▶ 전시기간 : 2022.8.22(월) ~ 계속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1층 상설전시실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독립기념관
-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한국의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과 함께 8월 22일(월)부터 LA한국문화원 1층 전시실에 '태극기 영원을 담다' 상설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재외동포 및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를 알리는 '체험형 전시'이다. 1층 상설전시실 중 일부를 매년 새로운 주제 전시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설치했으며, 이번에는 "태극기, 모두의 영원을 담다"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1층 상설전시장 전경



김구 서명문 태극기 복제자료

태극기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다. 19세기 후반 외국과의 통상을 시작하던 때에는 자주 국가의 열망을,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국 광복 후에는 1948년 새로이 수립된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었다.

2021년 보물로 지정된 '대니 태극기', '진관사 소장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순간에 한민족과 함께한 태극기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LA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한 국가유산 태극기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주와 자유를 지향했던 한민족의 영원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LA한국문화원의 정상원 문화원장은 " LA지역은 미주이민 1세대의 정착지이자, 일제 강점기 때 북미지역 한국독립운동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활동했던 역사적 장소와 기념물 등이 상당수 남아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인 2.3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데니 태극기

1890년 경 고종이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ny)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태극기이다.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조선의 외교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데니가 1891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갔으나 1981년 데니의 후손이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태극기가 되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2009년 서울 진관사의 칠성각 건물 보수 중에 발견된 태극기로, 함께 보관되어 있던 신문 발행연도를 통해 1919년 3·1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아래에 있던 한국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과 사괘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가 1941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벨기에 신부 메우스에게 한인들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준 태극기이다. 태극기 오른쪽에는 당시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의 지원을 동포들에게 부탁하기 위해 김구가 직접 쓴 글귀와 그의 인장이 있다.